졸업 연설

조민희

안녕하세요? 저는 사랑한국학교 패랭이꽃반 조민희입니다. 지금 고등학교 9 학년입니다. 저는 어려서부터 한국학교 선생님인 엄마를 따라서 학교에 왔습니다. 한글 공부가 어려워서 안 오고 싶었습니다. 그래도 엄마가 안 된다고 혼내시고 계속 데리고 오셨습니다. 그런데 언젠가부터 점점 한국학교가 재미있어졌습니다. 친구들도 좋아졌습니다. 그러다가 지금은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. 이제 한국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랑 한국말을 더 많이 연습할 겁니다. 지금까지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영어로 말을 더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한국말로만 할 겁니다. 앞으로 한국말을 더 많이 연습할 겁니다.

저는 학교 신문을 만드는 일이 참 재미있었습니다. 친구들과 같이 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. 인터뷰도 재미있었습니다. 작년에는 한국학교 역사문화 퀴즈대회에도 나갔습니다. 상은 못 받았지만 많이 배웠습니다. 단어왕 대회 공부를 하면서도 새 단어들을 많이 배웠습니다. 토요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잘 한 것 같습니다. 엄마 아빠가 매주 데려다 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리 엄마 아빠는 제 친구같습니다.

매일 칭찬해 주신 홍태명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. 잘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맹순영 선생님 고맙습니다. 다른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. 10 학년이 되면 미국 학교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. 졸업을 하면서 더 착한 민희가 될 겁니다. 고맙습니다.

2016 년 6 월 11 일